

대림 제4주일

기도서 220면 (가해)

제 1독서 : 이사 7, 10-14

제 2독서 : 로마 1, 1-7

복 음 : 마태 1, 18-24

순정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 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이여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마태오 1, 21)



당신이 오신 날 우리는

李海仁 수녀

당신이 어린이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어린이가 되지 못한
복잡한 생각과 체면의 무게를 그대로 지닌 채
당신 앞에서 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비록 당신을 모시기엔 부끄러운 가슴이오나
당신을 기꺼이 안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안고
당신처럼 단순하고, 정직하고
결혼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게 해 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따뜻하고 온유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빛으로 오신 날 우리는
아직 살라 버리지 못한 죄의 어둠 그대로 지닌 채
당신께 왔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비록 허물투성이의 삶일지라도
당신의 빛을 따르면 길이 열리오니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빛을 가리는 육심의 어둠
불신의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빛 안에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한늘에 영광 땅에는 평화



나는 다섯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천애의 고아가 되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남의 집 문전걸식으로 불행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처음 배운 것은 배고픔과 외로움, 끓을 모르는 설움이었습니다. 나는 인간들의 따뜻한 정을 갈망했지만 남는 것은 작은 가슴에 못으로 박히는 아픔 뿐이었습니다. 나는 사람들도 세상도 미워하기 시작했고 무서운 증오와 반항심만을 키웠습니다. 나를 친절하게 맞아주는 곳은 악의 소굴뿐이었습니다. 차라리 그곳은 편안한 삶의 등지였습니다. 남을 속이고 빼앗고 싸우는 생활이 계속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교도소는 나의 고향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나면서 자신이 미워졌고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죽음과 같은 결단을 내렸고 악의 소굴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소박한 인정을 '나 누어 사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감옥 속에서 만난 하느님

-한 수인(囚人)의 참회기-

아무도 찾을 수 없고 어떤 죄의 유혹도 없을 것 같은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 머슴을 살았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의 불행의 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80년도 광주 사태가 한창 진행되어 절 즈음에 사람들은 나의 신원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고

속절없이 훌렸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전주 교도소에서 살았습니다. 광기에 가까운 몸부림의 세월이었고 적개심과 복수의 방법만을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자살까지도 시도했습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런 기력도 없을 만큼 지쳤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몸으로 처음맞는 성탄!

아이며 전파자이고 전라도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 주인은 6개월간의 노임도 주지 않은채 나를 죄아 냈습니다. 나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강하게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경찰서에 넘겨지고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나는 또 한번 세상의 부조리와 냉혹함에 치를 떨었고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머물 곳이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 잡혔습니다. 나의 분노는 주인에게 폭발되었습니다. 끝내 나는 국보위의 사술에 끓이게 되었고 계엄군사 재판에서 또 하나의 폭도가 되어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 후 한번의 정당한 재판도 없이 나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또 다시 갇힌 몸(囚人)이 되었습니다. 한과 분노, 원망과 미움의 세월이

처음맞는 성탄!

놀라운 은총이 나를 찾아주었습니다. 주님은 내 절망의 끝자리에서 내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내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을 때 주님은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회의에 몸부림치던 어느날 무엇에 이끌린듯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의 참혹한 모습을 보았고 나는 그 앞에서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여지없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탕자인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회망을 가졌고 힘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하느님은 나를 찾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마지막 교도소에 들어갈

때까지 글을 읽을 줄도 더구나 쓸줄도 몰랐습니다. 완전한 문맹이었습니다만 성경을 읽기 위하여 어린이처럼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교리도 열심히 배웠고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나는 감격 속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거지였던 나자로로 정했습니다.

나는 모두를 용서했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가장 나약한 것을 들추워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은총의 역사를 나의 과거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9년 가까운 형기를 마치고 89. 8. 14 일자로 출소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판단에 나를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로지 주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여 살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고맙기도 「베소라 성서」에서 나를 일꾼으로 써주셔서 항상 감사와 기쁨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주님의 아들로 살 것입니다.

자유의 몸으로 처음 맞은 성탄절 - 나는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마구간 같은 누추한 내 마음 안에 비단을 깔고 축하를 드릴 것입니다.

하느님 만세!

양동술 / 나자로

요십이 (855) 김병오

최씨입니까? 왜 국회증언을 안할려고 합니까?

10년전에 큰감투를 봐보같이 빼앗겨서 쟁피해서 그렇소

전씨입니까? 왜 생중계 증언을 할려고 합니까?

우리친구들이 릴은 함께하고서 나혼자만 책임지라고하니 분해서

원고를 기다립니다

나침판 등에 실릴 원고 : 3~
매 내외
체험담 : 5매 내외
기타 : 3~4매 내외
보내실 곳 : 520-090 전주서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교구소식

- 축! 성탄 : 교구민 모든신자분들께 기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 평신도 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 : 일시 - 1990년 1월 6일(토)
오후2시 장소 - 가톨릭 센타 3층 회의실 참석대상 - 각본당 사목 회장, 교구단위 단체장, 평협임원
- 중·고 전례부원 연수 : 일시 - ①남전주, 이리, 익산, 삼례, 무진
장지구 - 1990. 1. 7(일) 오전9: 00 ②북전주, 군산, 김제, 임순
남, 정읍지구 - 1990. 1. 14(일) 오전9: 00 장소 - 가톨릭센타
대상 - 각본당 전례부원(해설자, 복사단) 참가비 - 공문참조
- 어린이 복사단 교육 : 일시 - ①남전주, 김제, 삼례지구 - 1990.
1. 8(월) 오전9: 30 ②북전주, 정읍, 이리지구 - 1990. 1. 9(화)
오전9: 30 ③군옥, 익산, 임순남, 무진장지구 - 1990. 1. 10(수)
오전9: 30 장소 - 가톨릭센타 대상 - 초등부 복사단 참가비 - 1
인당 2,000원
- 전주 제4차 선택 : 일시 - 1990. 2. 9~11 장소 - 천호 페정의
집, 대상 - 미혼 청은이, 접수 - 교구청 교육국
- 평신도 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 : 일시 - 1990년 1월 6일(토) 오
후2시, 장소 - 가톨릭센타 3층 회의실, 대상 - 각본당, 사목회장,
교구단위 단체장, 평협임원
- 축! 영명 : 12월 26일(성스테파노) 김치삼, 김환철, 나춘성신부
님 12월 27일(성요한 사도 복음사가) 서석구, 김병환, 김기수, 전
종복, 이덕근, 김선태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첫번째 말구유 장면 아씨시의 성프란치스꼬에 의해 정립



에서 1223년의 성탄을 보내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재현하고픈 열정에 사로잡혔다. 그의 지시에 따라 그레치오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 하던 당시의 모습을 진짜 살아있는 동물을 등장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예수와 마리아 그리고 요셉 역할을 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첫번째 말구유 꾸미는 풍습이 시작되었다. 예수 오심을 기리기 위해 어떤 가정에서는 대림절 동안 말구유를 꾸며 가려놓고 있다가 크리스마스날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가리개를 벗기고 축하인사를 드린다.

황수경 산부인과

여의사
산부인과 전문의
황수경(크리스티나)
이승렬(엘리아)

관통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 블록

TEL. 84-7272



부인주단

김 한중(요한)
황 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앞
84-7294

- 주단
- 침구
- 혼수전문

성심木공업사

성구 제대·강론대·제구장·긴의자
탁상·화분대·홀려용기구 및 출전문

서 스테파노(옥봉)
한 안나(은순)
전주 ☎ 77-1747

한글, 한문 기초부터 개별지도
(주부반 특별편성)

명륜서예학원

원장 선기정(요셉)
효자성당 앞
☎ 82-6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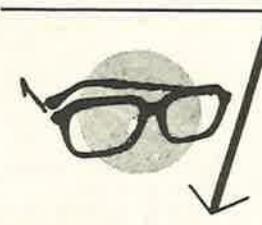
팻션핸드백의 명품

미성핸드백

김 혜경(글라라)
하 명희(미카엘)

전주 코아매화점 1층
☎ 80-1140

밀음과 정성을 다하는



광명안경원

박종락(조화서 베드로)
안화동(프리스가)
전주오거리(신) 서강정형외과 앞
(구) 나정형외과

☎ 74-1123.3-6709



일분명상

죄를 언제까지나 참회하고 있
어서는 안된다. 우울증에 빠져
하느님을 대할 수 없기 때문이
다. 마음 속으로 깊이 반성하
고, 두 번 다시 괴오를 되풀이 하
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나서 기
쁨으로 하느님께 봉사하라.

-탈무드-

명동피부과의원



“주여 어서 오십시오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 내가 맞는 성탄 -

자신에게 과연 그리스도가 탄생했는지

성탄을 맞으면서, 오늘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탄생하실까 하고 생각해 본다. 예수님은 연일 죽 제분위기로 가득찬 관통로의 어느 커괴숍에 탄생하실까 아니면 하루벌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조용한 오두막집에 탄생하실까, 혹은 화려하게 꾸며진 성당의 구유에서 탄생하실까, 아니면 문구현 신부님이 간혜계신 서울구치소의 많은 양심수인들 속에서 탄생하실까… 초라한 마굿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셋기기에 너무나 뱀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어는 곳이든 모두에게 탄생하셨으면 좋겠다. 하여 잘못된 마음과 상처난 마음을 고쳐 바로 세워주시고, 의로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더욱 격려하시어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이었으면 한다. 성탄을 맞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과연 탄생했는지 반성해 본다.

전동보좌/김선태신부

작은 예물

며칠 전 모습이 초라한 아주머니 한 분이 사무실을 찾아 오셨다. 순간 나는 어떤 도움을 청하실까? 생각하며 의자에 앉으시길 권하였더니, 들릴듯 말듯한 목소리로 “혹 필요하실련지…….” 하며 작은 보따리 하나를 수줍게 내려놓으시더니 총총히 나가시는 것이었다. 풀어보니 새 옷은 아니지만 약간 허약한 아동복과 고추가루가 한 봉지 나왔다. 순간 가슴이 끊을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렇듯 우리 사무실에는 자신을 깊이 반성케하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는 작은 예물들이 일상을 통하여 배달된다. 특히 후원회 미사가 끝날 때마다 모아지는 정성들; 좀들이 쌀 두세가마, 거기에 따른 메주 한坛, 세탁비누, 간장, 고추장, 된장, 김치까지도……. 크고 작은 관계없이 모아지는 이 정성들을 올해엔 작은 자매의 집(정박

아), 무지개 가족(지체 장애자)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였고, 미육으로 하여금 중학교를 졸업하게 하였다. 동시에 과연 이런 마음들의 심부름꾼으로서 나는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깊이 반성해 볼 때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아기 예수님께 이 작은 예물들을 나의 부족함과 더불어 바치고자 한다.

“주님, 비록 한 순간이나마 한 해를 돌아보고, 당신께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바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가난한 예물이 당신 구속사업의 참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사회복지회/김영자(말다)

노동자의 모습 예수

세상은 겨울이 깊어갈 무렵이면 다들 분주해진다. 성탄, 망년회, 사온회 등……. 잔업이다 특근이다. 하며 시간에 쫓기다 주일미사도 제대로 못지키고 성탄 대미사나 참여하는 정도의 나.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그동안 일에 지쳐 짜증스럽던 내게 새삼 우리 노동자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어제를 뒤틀어 보면 용기가 없어 동료가 아파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못본척하며 지난 세월이 어디 하루 이틀인가……. 올바른 신앙인, 올바른 노동자로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고통 속에 태어나신 그분을 묵상하며 구유 앞에 머리 숙여 본다.

노동자/박복동

할머니를 위한 성탄

데림절의 한주 한주가 지날 때면 저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까?”하고 생각해봅니다. 제가 해마다 이때쯤이면 느끼는 성탄절은 이렇습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뜻도 있겠지만 또 한가지 불쌍한 이웃, 즉 고아들이나 양로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집에는 몇년 전부터 아파서 누워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항상 아프셔서 어떤 때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십니다. 이렇듯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봐오면 저는 웬지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올해 이 기쁜 성탄절을 할머니를 위해 보내겠다고 말입니다. 과거의 그 어느 성탄절 보다 더욱 더 뜻깊고 알찬 예수님의 성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님! 저의 조그마한 정성이 할머니께는 큰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저의 작은 정성이 아주 큰 힘이 되어서 할머니의 병이 나으시어 저와 손을 맞잡고 성탄전야 미사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도와주세요.”

평화성당(중2)/임지현

그 누구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자신에게 과연 그리스도가 탄생 했는지 …

용서를 비는 성탄

우리 어온동 마을은 대원군 시대에 하느님을 믿겠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첨첨산중 오지마을 하늘만 빤히 바라보이는 곳에 모여온 신자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난여름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와서 가난하던 마을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교우들의 얼굴에는 하느님을 믿어서 인지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고달프고 제일 낮은 곳에 살고 있지만 후세의 끝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 가난한 신골 농민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왜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처럼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없는 편에 서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진리의 말씀만 들려 주셨는지 묵상해 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세상의 인간

들……. 지금 생각하면 제 믿음도 헛된 것이었고 부족함이 너무 많음을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요. 아기 예수님 앞에서 조용히 제 자신과 이웃의 죄를 빌고 싶습니다.

어은공소회장/강길랑

마음속의 고통과 기쁨의 주인공

매년 이맘때면 들려오는 거리의 종소리, 교회의 종소리, 그리고 밝은 거리의 캐를송…….

모든 것이 그립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얘기하고 싶다. 나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지내게 되는 크리스마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속의 고통을 당하며 성탄을 지내야 한다는 것이 슬프기 만하다. 그러나 기쁘다. 또 행복감마저 듣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길 완전한 몸으로 지옥에 떨어

3개월 정도의 이곳 생활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가족과 부모님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과 가족 모두에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란다.

소년원/이베드로

산타할아버지 돼지 한마리씩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먼 거리에 사는 아이들까지 저녁마다 공소에 모여 난로불에 고사리 손들을 죄어가며 노래연습과 성극을 연습하며 어른들까지도 카세트를 사다가 연극과 노래 연습을 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려왔다.

그래서 더욱 이런 간절한 기도도 해 본다. “예수님, 이번에는 산타 할아버지 선물 자루에다가 돼지 한마리씩만 넣어서 집집마다 좀 보내주세요. 돼지값 폭락으로 우리공소 신자들이 빚지고 한숨짓는 모습을 보기 가슴이 지려요.”

본당이 멀리 떨어진 나환자촌 공소이기 때문에 성탄날도 미사 없이 우리들만이 지내는 성탄잔치가 어쩐지 마음에 쓸쓸하기만 하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가난한 곳을 찾아 탄생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시니 가난한자 복되도다.

〈신암공소 수녀〉

술정이 산책



이전 개원
김안과의원
전주시사노슬길 636-5
(중앙성당길 차선차로으로)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국세청
우산군이 살아있는 고급우유

파스퇴르우유
박성자(루시아)
파스퇴르우유
길제부의대리점
TEL. (0658) 45-0794

이태리 천연대리석 성물판매
성마리아성물센타
채수현(시몬)
가톨릭센타 1층
☎ 87-6708

방학강좌 안내

고교예비반 : 고1(영·수·국)
기초자지기
(1월 3일)

겨울방학단과 강좌
중·고 영수 단과
(1월 3일)

전문 대입시반 : 1월 15일
대입기초종합반 : 1월 5일

원장: 이영근(시몬)

대입 전문 **한생학원**
전주 시청길 74-7424

수시상담 · 능력별지도
초·중·고 일반부 주부
- 회화반

베스트영어학원

원장: 송승종(스탈라)

서서학동 사무소 앞 TEL. 87-5631

해외성지순례안내
국내신혼여행안내

전일관광

조선(안토니오)

☎ 6-6666~8

신장개업

헤레나미용타운

김예순(밸비라)

TEL. 85-3483

(효자국교 옆 시거리)

90학년도
유치부 원아모집

호남웅변종합학원

제일예식장 뒤

TEL. 3-3284, 72-4417

새호남웅변종합학원

전주역앞

TEL. 4-3948, 76-0034

효자웅변종합학원

삼천쌍용 아파트앞

TEL. 83-8331 ~ 2

원장: 유병철(베드로)

원감: 박경애(오젤라)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회장·드레스미용·대여
최윤경(유리언)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8가 7-1

TEL. 3-2496-2-8653

신자들의 소리

사랑하는 그대여 들리십니까.....

어느새 12월.
지나간 열한달의 기억은 별로
없는데, 벌써 열두달째 달력이다.
따뜻했던 봄날 오후, 수박을
푸짐하게 먹던 물놀이, 거리의
나껍 때문에 글썽이던 눈물, 그
좋게 해서 또 1년이 가버렸다.
무심히, 빨리, 그리고 허무하
세-

4년전, 자상하던 남편의 속삭
임이 생각난다.

“내가 곧 뒤따라 나가겠으니
먼저 나가시오.”

그 배려로 나는 선택되었고 그
구원의 배에 기적적으로 승선했

다. 그토록 불안하던 마음이, 평

화속에 잠기고, 심난하던 인생길

이, 조금씩 편안해지더니 이젠

큰소리로 그분을 사랑한다고 외

치기엔 부끄러운 믿음이지만 조

용한 가운데 홀로 있으면 어느새

나는 그분께 달려가곤 한다.

갓난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태어나듯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

나던 나의 4년전, 12월. 곧 따라

온다면 남편은 아직도 소식이 없

다.

우리의 가정을 가꾸기 위해 아

침부터 밤늦도록 고생하는 남편.

그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는 밤.

그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눈물에

젖은 것처럼 보인다.

비오는 오후, 따뜻한 방에서

낮잠 한소금 자는 게 소원인, 커

다란 텁니바퀴 속에 작은 나사못,
그의 뒷모습은 늘 축은하고 힘겹
다.

그는 자기의 아내를 꽃향기 그
윽한 오솔길을 걷도록 하고는 자
기는 가시밭길을 헤매고 있다.
너무도 가까운 곳에 오솔길이 있
는데.....

그의 마음은, 늘 주님께 있고
나와 똑같이 영성체를 한다지만
그의 육신은 이곳에 없다. 영혼
만이 주님께 와 있는 남편. 나는
귀신과 사는 걸까?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도 그분
은 나를 사랑하시어 착한 남편을
주셨다. 신령연휴가 어제 같지만,
벌써 연말이듯이 짧고 허무한 여
행같은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라
고.....

고요한 성당 안에서 나혼자만이
그분께 경배드릴 때 결국 내가 두
몫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나의 마음은 문득 다급해서 풍꽁
묶어서라도 주님 앞에 앉히고 싶다.

진실로 오직 사랑하는 나의 짹
이여.....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그대 마
음을 활짝 여십시오. 곧 따라온
다면 그 말은 저 혼자들은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끄시던 주님과
함께 들은 말이 아닙니까?

정말 마음은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세벽의 종소리에 깨어나듯 이제
그만 자고 깨어 나십시오.
사랑하는 그대여.....

노송성당/최은자(베로니카)

착하게 살아갈께요

아기 예수님께 이 글을 바칩니다.

아기 예수님. 금년 성탄은 더욱
더 소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아
기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중인데 뾰족한 생각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예요.

아기 예수님. 저희가 사는 인간
세상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지만 항상 예수님께
서 저희와 같이 계셔서 바르게
자라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생활하는 학교에서는 친구간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비판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
파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친구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이상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
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
세요.

아기 예수님. 이번 성탄을 맞
이하여 저희들에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내려주
세요.

손 미경(국4년)/동산성당

알고봅시다



VIDEO

신간

◀ 두개의 십자가 ▶

제작: 이태리 텔레비전 국영방

송

원제: LE DVE CROCI

감독: 실비오 마에스트란치

103분/컬러/20,000원

▶ 한이와 성탄절 ▶

신혜경 글·그림/성바오로출판사

1989년 12월 5일 발행/반양장

210×297mm/24면/2,000원

분류 A2

‘한이네 이야기’와 ‘한이와 해님
농장’과 같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으로 해이의 학교 생활
과 성탄절을 지내는 이야기로 역
어져 있다.

잊혀져 가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어린이들에게 불러
일으키게 한다. 내용 하나하나마다
구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그림으
로 표현되어 있어 재미있게 볼 수
있다.

학생 모집 요강

가톨릭 교리신학원 병설, 성바오로 딸 수도회,

시청각 통신 성서 교육부

■ 신 구약성서 입문과정

1. 내용: 신구약성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2년 과정

2. 자격: 고졸정도의 학력소유자(교과초월)

3. 구비서류: 입학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사진 3매

4. 원서교부 및 접수: 90년 1월~2월7일까지 원서대: 3,000원

■ 신·구약성서 중급과정

1. 내용: 성서입문의 바탕 위에서 보다 성서신학적인 방법으로
본문을 해독하도록 이끌어주는 4년 과정

2. 자격: 본 교육부 신구약성서 입문과정 수료자.

* 문의처: 132-104 서울시 도봉구 미아4동 103번지 시청각
통신성서교육부 전화(02-984-1611~4)

* 원서구입처: 전주 성바오로서원 3-3398

중앙

사제관 77-1713 주임신부 황 인 규
수녀원 5-1714 보좌신부 최 용 준
유치원 77-1712 사목회장 황 의 옥
사무실 77-1711

축! 예수성탄대축일: 주님의 평화가 중앙가족 모두에게 갈아
하시길 바랍니다. 24일~오후7시 중앙의 밤 저녁미사는 소성당에
서 오후11시30분 성탄구유안치예결 25일~0시 자정미사 9시,

10시30분, 오후3시, 7시미사만 있습니다.

애령회 충회: 오늘 공식미사후 회원은 전원 참석바랍니다.

레지오 마리애 연차충친목회: 1월2일 오후2시 레지오 단원 및

협조단원은 전원 참석바랍니다.

모임: 상지회~25일(월) 6시30분 모니카회~26일(화) 오전10

시30분 풀드레야~27일(수) 오후8시 성심부녀회~29일(금) 어

머니미사후 제속형제회~다음주일(31일) 오후2시

성탄절 불우형제돕기 성미·성금운동에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대꽃 풍현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송년 감사미사: 31일 7시 저녁미사겸합

FAX 251-3850 사제관 251-1912 주임신부 윤 수 해
사무실 251-1911 사목회장 소 완 영
수녀원 251-1913

축! 성탄 선물교환: 24일 자정미사(1인 1,000원)

성탄행사준비: 꾸리아, 율드레아, 교육가족회-연극과 합창

(10분) 2막

성탄미사인내: 9시, 10시30분, 저녁7시

망년미사: 31일 밤 11시45분

성탄행사: 24일 저녁8시(초등부, 중·고, 성인)

금주전례: 해설-김종구 독서①이훈석 ②김 숙

봉헌-김나수부부 복사-윤기한 권홍주

차주전례: 해설-나인숙 독서①유영수 ②송옥진

봉헌-소완영부부 복사-이대용 서병석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 태 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 상 텔
수·유 72-1222

축! 성탄: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전야행사: 7시30분부터(각팀 장기자랑, 청년성가대 발표회
개인 장기자랑) 자정미사: 오늘밤 11시30분, 미사후 성탄 파티

성탄미사는 25일 10시30분, 4시~어린이미사 7시~저녁미사

주일학교 성탄 행사: 25일 오후 2시30분 부터

12월 구역장·반장회의: 27일 오후2시

전례분과 회의: 27일 저녁7시30분

89년 교무급 완납해 주시고 90년도 교무급 신입해 주세요.

금주전례: 해설-박기자 복사·독서-요셉회 기도-덕진9반

차주전례: 해설-김후만 복사·독서-교육분과 기도-덕진12반

금주본당청소: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30일 오후2시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 순 형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 영 철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 영 철